

## 주요공적

- 오스트리아에 요청한 지원금으로 보건의료사업 추진
- 한센인 재활치료
- 한센인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의료보험 건의
- 한센인 지원금 모금 활동 등 다수

## 사랑의 발자취

1971. 05. 감사패 (보사부 장관 김태동)  
 05. 세마 (마리안느, 마가렛, 마리아)공적비 제막식  
 07. 국민포장 1004호 (대통령 박정희)
1974. 11. 감사패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  
 1979.05. 감사패 (대한간호협회 김모임)
- 1983.04. 표창장 제 57304호 (대통령 전두환)
1994.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에 와 오스트리아 정부 훈장 수여
- 1996.05. 국민훈장모란장 제1513호  
 05. 국민포장 증 제6491호 (대통령 김영삼)
- 1999.02.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영부인 이희호 여사 초청 청와대 행사 참석
04. 호암상 사회봉사상 (호암재단)
09. 마리안느, 마가렛 호암상 상금관리 위원회 규정 제정
- 2006.05. '마리안느, 마가렛의 집' 명명식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만)
2015. 12.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설립허가 (이사장 김연준 신부)
2016. 05. 고흡군 명예군민증 수여 (군수 박병중)  
 06. 대한민국 명예국민증 수여 (법무부장관 김현웅)  
 06.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등록문화재 제660호 지정  
 08. 제20회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 (만해추진추진위원회 위원장 오원배)  
 10. 인스부르크에서 만해대상 전수식 (오스트리아 카톨릭 부인회 주관, 인스부르크 교구 후원)
- 2018.03. 전라남도 명예 도민증 수여 (도지사 이낙연)
- 2019.03. 소록도의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기념관 개관
2021. 10. 마리안느스퇴거 나이팅게일 기장상 (국제적십자위원회)
2021. 11. 국제간호대상 수상 (국제간호사협의회, 플로렌스나이팅게일 국제재단)
2021. ~ 고흡군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매년 시상
2020. ~ 노벨평화상 추천서 노벨평화상 위원회 제출
2022.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총리
- 2020 (문화상 국회의장 추천)  
 2021 (최형두 국회의원 추천)  
 2022 (여야 국회의원 109명 공동)



사단법인 **마리안느와마가렛**  
 Marianne and Margreth Association

59562 전남 고흡군 도양읍 소록선창길13  
 Tel. 061-844-0815 Mobile. 010-9439-0815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Marianne Margreth Institute of Training and Refinement in Sorokdo

59556 전남 고흡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49-17  
 Tel. 061-842-1700 Fax. 061-842-1800  
 Mobile. 010-3756-1116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sorokdo.co.kr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후원참여란에서도 후원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농협 | 351-0847-8105-63  
 광주 | 680-107-336674  
 예금주 |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www.sorokdo.co.kr

@sorokmama

@association\_marianne\_margreth

## 소록도의 천사

#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단법인 **마리안느와마가렛**  
 Marianne and Margreth



**마리안느 스테거**  
 Marianne Stöger /84세

- 1934. 04. 24 오스트리아 출생
- 애칭 : 큰할매
- 한국이름 : 고지선
- 천주교 그리스도왕 시녀회 소속 (54년 입회, 62년 종신서원)
- 1962 소록도에서 영아원 운영 시작
-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 (1962년 ~ 2005년)



**마가렛 피사렉**  
 Margerth Pissarek /83세

- 1935. 06. 09 오스트리아 출생
- 애칭 : 작은할매
- 한국이름 : 백수선
- 천주교 그리스도왕 시녀회 소속 (54년 종신서원)
- 1959년 한국에 입국
- 소록도에서 36년간 봉사 (1966년 ~ 2005년)

#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이렇게 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한 소록도는 1917년부터 한센인(나병환우)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소록도는 고통의 땅, 비극의 섬, 한이 많은 곳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1960년대에 오스트리아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간호사로 찾아와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진 소록도 환우들에게 탄생의 축복과 삶의 희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분은 때로는 의료인으로, 누이로, 사회복지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머니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두 분은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에 도움을 호소하며 소록도 환우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합니다. 특히 결핵병동, 정신병동, 목욕탕, 맹인병동, 영아원등의 시설들을 세워줌으로써 열악했던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센인들이 결혼하거나, 병이 치료되어 사회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정착자금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평생을 소록도 환우들 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남은여생조차도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2005년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71세, 72세의 나이에 43년간의 소록도 생활을 아무도 모르게 정리하셨습니다. 두 분은 봉사자였기에 퇴직금도 연금도 없이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가방하나만 들고 말없이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되돌려 줘야한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성하였고 이는 곧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되었습니다. 법인은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두 분처럼 봉사의 삶을 사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 법인의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첫째, 빈손으로 떠나신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 고흥군과 함께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것.
- 둘째, 두 분의 삶을 세상에 이야기함으로써 모두가 지니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깨우는 것.
- 셋째, 지구촌 가난한 곳에서 제2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
- 넷째,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를 모티브로 삼아 많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다섯째, 고흥군과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대상'을 매년 개최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을 찾아 격려하는 것.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더 가치 있게 행사 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함께 고민하고 도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Wir alle müssen mit  
Hoffnung leben.

